2014년 9월 17일 공보 2014-9-17호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.

제 목 :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

□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월 17일(수)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7개 은행* 대표들과 '금융협의회'를 개최하였음

* 우리, 기업, 농협, 하나, 외환, 한국씨티, 한국스탠다드차타드

붙 임 : 금융협의회시 주요 논의내용 1부. 끝.

문의처 : 통화정책국 금융시장부 자금시장팀 팀장 황인선, 과장 정흥순
Tel : 759-4473, 4778 Fax : 759-4155 E-mail : jhs117@bok.or.kr
공보실 : Tel (02) 759-4015, 4016

"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http://www.bok.or.kr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"

한국은행
THE BANK OF KOREA

(붙 임)

금융협의회시 주요 논의내용

□ 참석자들은 국내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구조적 요인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이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, 규제완화 등 국내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구조개선 노력이 긴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

□ 은행장들은 LTV·DTI 규제 합리화, 기준금리 인하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비은행으로부터의 대출수요 이전, 고금리 신용대출 전환 등에도 기인하고 있으며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수요의 증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

□ 참석자들은 기업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는 양호하지만 기업규모별·업종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자금흐름 개선 노력을 계속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